

본문: 마가복음 1:1-8 절

제목: Way maker

1.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 앞에 라틴어로 된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논쟁이라는 뜻의 "Disputatio"라는 이 문서는 기독교 역사에 가장 강력하고도 폭발적인 저항 운동이 된 "종교개혁"을 촉발시킵니다. 루터는 무엇 때문에 '95개조 반박문'으로 불리는 'Disputatio'를 써야만 했을까요? 그는 이 문서를 통해 무엇을 주장하고자 했나요? 반박문의 주요 내용은 '면벌부(免罰符)'에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면벌부'란 말 그대로 벌을 면하게 해주는 부적이었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인들은 연옥(煉獄, Purgatory)을 믿었습니다.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 있는 곳으로 믿어졌습니다. 살아 있는 자들의 헌금을 통해 죽은 자들의 연옥에 있는 시기를 줄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죽은 이를 위해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죽은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믿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면벌부가 사제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제들 중에는 자신의 빚을 면벌부 판매로 메꾸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성당을 짓는다는 명분 하에 교황의 주도로 면벌부가 판매되기도 했죠. 마틴 루터는 이러한 면벌부 판매가 성경에 반대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95개조 반박문'을 통해 저항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길이 아닌 정반대의 바른 길을 가고자 저항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이 저항운동은 쾰빙글리(Ulich Zwingli), 장 칼뱅(Jean Calvin)같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전 유럽으로 퍼져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큰 개혁의 뜻을 세웠습니다. 그 구호는 사제들의 사리사욕에 의해 왜곡된 기독교가 아닌 성경의 원래의 뜻과 목적을 따르는 참 기독교로 돌아가기 원하는 간절한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물 근원(根源)을 향하여' 또는 '물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을 가진 "**Ad Fontes**(back to the sources)"라는 라틴 말은 종교개혁자들이 만들 새로운 길의 지향점을 알려주었죠. '**이것이 종교냐?**'라는 강한 의구심에서 시작된 거짓 종교에 대한 반발심은 종교개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Protestant'는 그들을 비꼬는 말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을 정확히 나타내 주는 말이기도 했죠. 지향점이 다른 삶 말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거슬러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종교개혁의 뜻을 기리는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개혁자들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일까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지향점을 재 조정해 보고자 합니다.

2.

지난 10 월 26 일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사살한 날입니다. 소설가 김훈은 안중근 의사에 대한 빛진 마음으로 소설 "하얼빈"을 올 여름에 출간하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안중근 의사의 삶을 추적해오며 자료를 모았고 그의 삶을 '하얼빈'이라는 소설을 통해 조명했습니다. 저도 몇 주 전에 드디어 소설 '하얼빈'을 손에 넣었고 단숨에 읽었습니다. 소설을 읽어 내려가며 저는 이런 질문을 계속 되내었습니다. "내가 만약 안중근이었다면...과연 나는 것처럼 할 수 있었을까?", "안중근이 자신의 신념을 실행해 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이였을까?" 그는 서른 두 살의 나이에 순국했습니다. 그가 죽을 당시 셋째는 아빠 얼굴도 못 본 갓난 아이였습니다. 제가 만약 안중근이었다면 처자식을 버리고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안중근은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의 가문은 천주교 신앙을 가진 황해도 해주의 권세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권세를 입고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굳이 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슬하에는 큰 딸 밑에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이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 혼자서 러시아 연해주로 독립운동을 위해 떠납니다. 그는 마치 물 맷돌 다섯개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간 다윗처럼, 권총에 실탄 일곱 알을 채워 들고 하얼빈 역으로 향합니다. 안중근은 이토를 사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토 한 사람의 광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내 몰리고 불행해졌다고 믿었습니다. 이토를 없애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대로 총알 일곱 발 중 여섯 발을 쏘고 그 중 세발이 이토의 급소를 관통합니다. 황해도의 시골청년이 쏘아 올린 이 혁명적인 시도는 큰 파장을 일으키며 독립 운동에 불을 지핍니다.

안중근에게 세례를 주었던 천주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안중근 사건과 선을 긋습니다. 당시 조선의 천주교 책임자였던 프랑스 신부 뫼텔은 안중근을 살인자로 정죄합니다. 안중근에게 세례를 주었던 고향 성당의 빌렘 신부가 여순 감옥에 가서

그의 고해성사를 행하고자 요청했을 때도 뫼텔 신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같은 프랑스인이었던 빌렘 신부는 뫼텔의 뜻을 저버리고 개인적으로 안중근을 찾아 가 그의 고해성사를 행했습니다. 안중근이 죽기 3 일전의 일이었죠. 천주교는 1993 년이 될 때까지 안중근의 의로운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93 년 8 월이 되어서야 김수환 추기경은 “그분의 의거는 일제의 무력침략 앞에서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행위였고 정당방위이며 의거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라며 안중근 의사의 행동이 더 큰 평화를 위한 노력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안중근의 행위는 한 명을 죽인 살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평화를 해친 원흉을 없앤 의로운 행위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제가 소설을 읽으며 놀랐던 것은 안중근이 스스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부의 어떤 지시도 없이 스스로 계획하여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그의 마음 속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도 좋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그의 가문이 겪게 될 어떤 핍박도 그를 꺾지는 못했던 겁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이 불지핀 개혁의 불이 전 유럽으로 번져갔듯, 안중근의 의로운 행동은 이후의 많은 독립 운동의 불씨가 됩니다. 시골뜨기였고 포수에 불과했던 한 사람의 결심과 행동은 그렇게 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게 만들었죠.

### 3.

마가복음도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을 소개하며 그가 만든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간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갈 그 길이 될 것이라고 마가복음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걸어갈 길의 방향과 그의 길의 방향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제사장 가문인 레위지파였습니다. 그 또한 제사장으로 앞 날이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이 되었다면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출생의 비밀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백발에 그를 낳았습니다. 그를 잉태할 당시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예언을 받았죠. 그 예언을 간단히 말하면 그가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이라고 천사는 일러줬죠(눅 1:15-18). 그는 평범한 제사장의 삶은 못 살 운명이었던 겁니다. 성인이 되자 그는 예루살렘의 자신의 집을 떠나 길을 만들기 위해 유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자리에 앉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길을 닦는 Way maker 였던 겁니다.

아마도 그의 어린 시절부터 책상머리에는 이사야서 40 장 3 절 말씀이 붙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세레자 요한의 비전과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똑바르고 곧게 만드는 것이죠. 세레자 요한은 마틴 루터처럼 한 시대의 획을 그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가르치는 선구자 역할을 요한이 했습니다. 요한의 활동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길이 만들어 졌으니 그렇습니다. 루터 또한 중세와 근대를 가른 혁명적 인물이었죠. 안중근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조선인들은 평화의 세상을 다시 꿈꿀 수 있었습니다. 요한과 루터 그리고 안중근은 그런 의미에서 시대를 바꿔 놓은 혁명가들이었습니다.

세레 요한의 혁명은 사람들이 봄비는 광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텅비고 황량한 들녘에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외진 곳이 광야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분리되고 단절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세레자 요한은 그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던 말입니까? 그의 외침은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세레를 받아라.” 그런데 그의 단순한 외침에 도대체 무슨 힘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그에게 그렇게 많이 몰려든 것일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권위를 느끼고 그에게로 와서 침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가문 마저 초라한 광야의 예언자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신비롭습니다. 도대체 세레자 요한의 이런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세레자 요한은 성전을 중심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무리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특권을 박차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모든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단절되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샘 근원을 찾아 광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받은 삶을 기억하며 그도 광야의 삶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는 직접 실험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의 강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선배였던 엘리야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는 엘리야의 심장을 가진 거친 혁명가였습니다.

4.

그렇다면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세례자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 도구와 연장은 회개와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이 요구는 우리 전 존재를 흔들어 놓는 매우 강력한 요구이기에 결코 쉽지 않은 무거운 요구입니다.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혁명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혁명(革命)의 한자는 가족 혁(革)에 목숨 명(命)자입니다.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혁명과 같다고 한 이유는 목숨을 내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피부를 벗겨 가족을 만들어 새사람이 되고, 목숨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혁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회개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전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그리스말 '메타노이아(Metanoia)'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목표, 삶의 타겟, 삶의 과녁을 완전히 다르게 설정하는 삶입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발만 딛어 놓고 모양만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껍대기를 완전히 벗어 던지고 알맹이를 취하는 삶입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의 욕망을 새롭게 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삶의 방식과 반대의 방향으로 protest 하며 가야할 지도 모릅니다. 굶어 죽더라도 삶의 근원이 되는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발버둥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적당히 믿어서 될 일입니까? 완전히 나의 가족을 벗겨서 새사람을 만들고 온전히 뜯어 고치는 혁명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회개 후에 새롭게 태어난 의식으로 세례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너무 미약하지만 그가 걸어간 그 발자국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거기에 길이 만들어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광야에서 참된 삶의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은 길이 되어 많은 이들을 진리이신 예수께로 안내했습니다.

5.

세례 요한의 혁명은 광야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를 강타하였습니다. 요한이 요구한 회개의 삶은 누가복음 3장에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였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의 변화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잉여의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2년 넘게 입지 않고 있는 고가의 옷, 그리고 여러분의 냉동실에 반 년 넘게 먹지 않고 있는 음식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에게 잉여의 급여가 있습니까? 혹시 그것은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 이웃과의 나눔과 공유가 없다면 여러분의 회개는 껍대기에 불과합니다. 다시 회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세리와 군인들에게 요한은 요구합니다. 너희 직업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뺏어내지 말라고 합니다. 높아진 지위로 이웃들의 존엄성을 짓밟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두가 동등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요한이 걷고자 했던 길이었습니다.

다른 이를 존중하고 그의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자주 말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이웃 사랑은 **“나를 통해 상대방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귀함과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음식과 옷 그리고 돈을 나누는 것이 별것 아닐 지 모르지만 받는 그 사람은 그 섬김을 통해 존귀함을 느낍니다. 이런 나눔과 베품의 삶의 방식이야 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할 종교 개혁과 진정한 혁명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은 자연스레 이웃을 지향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따라가는 Rival Gospel 이 아니라 참 복음을 따르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을 향한 Rival story 가 아닌 예수님의 스토리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오로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동자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SPC 평택 공장의 사고는 이 시대 라이벌 복음의 단면입니다. SPC는 직원들의 팔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는데도 기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대 비계약직 직원이 빵 소스 배합작업 중 앞치마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건 현장의 기계를 흰 천으로 가린 채 공장을 재가동했다고 합니다. 동료 직원의 생명과 존귀함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이윤만을 위해 돌아가는 기계인듯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라이벌 복음입니다. 돈과 이윤을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도 짓밟을 수 있다는 무서운 악마적인 발상입니다. 돈이 우상이 돼 버린 소비주의 자본사회의 민낯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우리의 샘 근원입니다. 이웃을 사람답게 대하고 존중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소비시대의 거짓 복음을 거스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혁명은 매우 작고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지향점을 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의 삶과 말씀이 진리라면 그의 삶의 방식에 나를 던지는 것이 마땅한 삶 아닐까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세례자 요한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맘몬)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왕상 18:21).”**

그 작은 혁명과 작은 개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 요한과 함께, 좁고 낮지만 바른 길을 향해 걸어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내 옆의 이웃들에게 손 내밀고 함께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함께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 만이라도 밝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틴 루터나 안중근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의 변화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로 인해 그 길은 더 또렷해 지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삶의 변화가 길이 되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야말로 way maker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지향점의 변화야말로 이 시대 우리가 이뤄내야 할 작은 종교개혁일 것입니다.